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강원도 양떼목장

엄마 친구 민정이 이모, 엄마, 아빠, 동생 편정이, 민정이이모 아기 민서, 민서아빠랑 강원도 양떼 목장에서 먼저 오전 100에 갔다. 2인용 물 미끄럼틀도 탔다. 그리고 혼자도 타 봤다. 튜브를 가지고 놀기도 했다 또 파도타기, 누영등을 했다. 숙소로 돌아와서 맛있는 고기 파티도 했다. 동생들이랑 놀아주기도 했다. 말할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었다. 다음날

다음날 ~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했다. 그리고 양떼목장에 갔다.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내려왔다. 내려올때 초원에서 뒹굴며 놀았다. 또 버스를 타고 내려 갔다. 정류장에 내려는데 양이 있었다. 양도 만져보고 양한테 먹이도 줬다. 버스를 타고 한참 내려가니 타조가 있었다. 타조는 전세계에서 치타 다음으로 빠르다고 한다. 타조한테도 먹이를 줬다. 이번엔 걸어서 내려 왔다. 소가 짝 아스크림을 먹

었다. 참 맛있었다. 모두가 행복한여행이였다